

해외생산 일본기업들의 일본회귀와 역수입 감소

-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생산 일본기업들의 일본회귀와 함께 역수입이 감소하고 있음
- 이는 해외투자선의 인건비 상승으로 해외생산과 역수입의 이점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가전과 일용품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
- 반면 현지 소비시장은 확대되고 있어 「地産地消」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
-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글로벌 최적생산 차원에서 일본기업의 대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, 앞으로 TPP 등 FTA의 확대에 따라 일본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질 전망

□ 해외생산 일본기업들의 일본회귀 현상

- 일본기업들이 가전이나 일용품 등의 생산을 일본 국내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
 - 일본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금액은 1년 반 전보다 13% 감소
 - 일본 국내에 유통되는 소비재 중 수입품이 점하는 비율도 저하되고 있음
 - 엔저와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 면에서 해외제품의 강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일본회귀의 주된 요인임
- 이와 함께 일본 국내공장을 활용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들도 있어, 생산의 과도한 해외이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

□ 해외생산의 일본회귀와 역수입 감소

-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에 의하면, 일본계 기업들의 현지법인이 일본에 제품을 출하하는 역수입의 매출액을 과거 1년간 소급하여 평균해보면 2017년 1-3월은 2조 5,926억 엔. 피크였던 2015년 7-9월 이후 3,876억 엔 감소하고 있음
 - 지역별로 보면, 일본의 역수입중 40% 이상을 점하는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이 2016년 4-6월기에 18.4%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갱신

- 일본 국내에 유통되는 소비재 중 수입품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입의존도도 2017년 6월에는 피크였던 2016년 3월보다 5% 저하됨

□ 해외투자선의 인건비 상승이 일본회귀의 주된 원인

-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품의 감소가 해외기업에 국내시장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님
- 일본기업이 역수입으로부터 국내생산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임
- 일본무역진흥기구(JERTO)에 의하면 중국 주요도시의 일반공 월급은 5년 동안 20-30% 상승했음
 - 중국의 월급을 달러로 환산한 절대액으로 보면 2,000달러 정도로 일본보다도 낮음
 - 그러나 생산성도 가미한 단위노동당 비용으로 비교하면 중국과 일본의 비용은 역전되고 있음
 - 일본 SMBC 일흥증권의 시산에 따르면 중국의 단위노동 비용은 일본보다 30% 높음
- 2017년 1-3월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은 1조 915억 엔으로 1년 반 전보다 18% 감소. 중국산 비율은 42%로 50%였던 5년 전보다 저하되고 있음

□ 지산지소 현상의 가속화

- 경제성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역수입의 이점은 감소되고 있으나 현지 소비시장은 확대되고 있음
 - 중국현지법인이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2016년 4-6월기 매출액은 38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. 매출액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도 70%에 육박, 해외자회사의 이른바 「地産地消」 현상이 가일층 진전되고 있음
- 임금상승은 아시아 각국에 확산되고 있음.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된 유력 노조는 2018년 최저임금을 1.5배로 인상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음

□ 전기기계 분야에서 일본회귀와 역수입 감소가 현저

- 역수입의 감소 중 60%는 대기업들의 생산이전이 진전되어온 가전 등 전기기계 분야임
 - JVC켄우드는 2015년 말에 일본 국내용 카네비게이션의 일부를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공장으로부터 나가노현의 생산거점으로 이관. 그때까지는 카네비게이션의 거의 전량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었음
- 환율동향에 좌우되기 어려운 경영도 국내생산을 중시하고 있음
 - 캐논은 2016년 12월기 국내생산비율이 56%. 카메라생산이 주력인 오이타공장에서 자동화를 추진, 앞으로는 60%까지 높일 계획임


□ 일용품 분야도 일본 내 생산으로 대체 확대

- 단가가 싸고 아시아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일용품 분야에서도 일본 국내산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음
 - 100엔 슝 「다이소」를 운영하는 다이소산업은 잡화는 거의 해외생산품이었으나 국내산을 늘릴 계획임
- 아이리스오야마는 약 100억 엔을 투입하여 2018년 1월을 목표로 이바라기 현에서 발광다이오드(LED)조명의 신공장을 가동할 계획임. 동경 올림픽을 앞둔 수도권 수요를 예측한 것임

□ 글로벌 최적생산의 일환으로 일본 내 투자

- 일본 국내시장은 큰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. 국내공장에서의 투자는 어디까지나 아시아 전체로 본 최적생산의 일부임
 - 카시오 계산기가 야마가타현에 고급손목시계 공장을 신설한 것은 신공장으로 생산을 집약시킴으로써 그곳에 아시아 거점의 관리기능을 두는 것도 목적의 하나임

□ FTA 확대로 구조적으로는 수입의존도 상승

- 그러나 다이와 종합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TPP 등이 발효 되면 해외공장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인바, 구조적으로는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방향에 있다고 보고 있음. 

< 참고자료 >

닛케이신문(2016.11.3, 2017.8.24)